

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

- 근로복지공단, 2020. 1

-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심경우)은 2020. 1. 1.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.
-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,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 복귀와 1,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,
 -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%,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%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.
-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%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심경우 이사장은 “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사업

- 도입배경
 - 산업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발생하는 반면, 이들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요양중 일자리 유지 및 계속 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도 제도 도입

●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신할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노동자의 임금 일부 지원
- (추진근거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67조(직업재활 지원)

●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
- (지원요건) 산재 요양기간에 사용한 대체노동자와 원직 복귀한 산재노동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
 - (산재노동자)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
 - (대체근로자) 산재노동자의 요양중 신규 고용하여 30일이상 고용 유지
- ※ 산재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
- (지원금액) 대체노동자 임금의 50%(월 60만원 한도)
- (지원기간) 대체노동자를 사용한 기간(최대 6개월)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화 명	1월 17일(금)	1월 20일(월)	1월 21일(화)
미 달 러 (USD)	1159.60	1158.80	1158.80
일 본 엔 (JPY)	1052.32	1051.83	1051.78
영 국 파 운 드 (GBP)	1516.58	1506.90	1507.37
캐 나 다 달 러 (CAD)	889.03	886.92	888.24
홍 콩 달 러 (HKD)	149.18	149.17	149.15
위 안 화 (CNH)	168.35	168.58	168.94
유 로 화 (EUR)	1291.39	1285.05	1285.57
호 주 달 러 (AUD)	799.83	796.73	796.73
싱 가 폴 달 러 (SGD)	860.91	859.96	860.44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85.37	285.77	285.45